

## 한국 살림살이 연구의 전개

정수진 (丁秀珍)

동국대학교

일본민속학회가 내건 2014년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는 「당연한 것을 묻다!」이다. 이에 맞춰 본 토론자에게 맡겨진 과제는 ‘韓國のサルリムサリ研究’의 전개 양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소개와 함께 본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겠다.

한국어로 ‘살림살이’란 ‘숟가락, 밥그릇, 이불 따위의 살림에 쓰는 세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 자체를 가리킨다. 나는 후자의 의미로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는바, 이는 이 연구가 생활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살림살이 연구는 사회학, 인류학, 건축학, 가정학 등에서 각 학문 분야의 고유한 관심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학문적 성과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보자면, 1990년대 초 프랑스의 마페졸리(M. Maffesoli)를 위시한 서구의 ‘일상생활의 사회학’이 소개된 후, 일상생활을 사회학의 연구대상으로 상정하고 천착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등장했다. 물론 이미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인구총조사’에 참여해서 계량적인 방법으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세간을 조사하는 사회학적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라는 개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론 및 인식론을 표방하면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구축한 연구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민속학에서는, 그 연구 영역이 과거 혹은 산간벽촌의 민속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에 정작 현재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그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런 점에서 2002년 이래 한국인의 살림살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의 아카이브 작업은 주목할 만하다. 2002년 민속박물관은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한일 양국의 ‘생활문화교류전’을 기획한 바 있는데, 당시 소개된 사토 코오지(佐藤浩司)의 ‘생활재생태학’이라는 용어와 방법론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민속박물관의 생활재 조사는 이른바 ‘물건은 말하며 읽혀질 수 있다’는 명제 하에 물질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千鎭基 현 박물관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소비되고 있는 수만 가지의 생활재들을 수집·기록하는 작업은 ‘대상중심적(object-oriented)’이기보다는 ‘개념중심적(concept-oriented)’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물건이 가정에 있고, 그것이 과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가? 거기에 숨어 있는 인간과 물건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물건이 놓여 있는 가정경관(家庭景觀)은 어떤 것인가?”,<sup>1</sup> 즉 그 물건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속박물관에서는 반곡리, 울산, 아현동, 정릉 등 4개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발간했으며, 현재도 민박의 정규 작업인 특정 지역의 민속 조사와 통합된 형태로 생활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이러하다. 우선 한 개의 도의 두 개 마을을 선정하고, 조사자 두 명, 사진작가 한 명 등 세 명이 한 팀을 이뤄 8개월 간 거주하면서 마을지를 작성한다. 통상 3~4개월이 지나면 그 마을에서 대표성을 띤 한 가정을 선발하고 조사자 2명을 추가 파견한 후 그 집안의 생활재를 되도록 총체적인 차원에서 조사·기록한다. 그 가정의 생활재 중 기증된 물건은 전시에 활용하고, 이미

조사한 가정에 대해 15~20 년을 주기로 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제의 변화상도 포착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 구상이다. 현 박물관장은 이렇게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생활제의 기록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유의미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이며, 과연 축적된 자료들을 통해 그 사물의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이 놓인 문화적 맥락의 복원과 이해가 과연 가능한지? 등일 것이다. 요컨대 생활제를 한국어의 ‘살림살이’ 라는 말처럼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이 조사 작업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대상화하고 해석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살림살이’ 에 대한 조사의 관점과 해석의 문제는 본 심포지엄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이미 모두 (冒頭) 에서 지적했듯이 본 심포지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묻고 있다. 이 물음은 이제까지 민속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상을 본격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마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질문한 적 없고, 게다가 인식의 틀에 잡히기도 어렵고 언어화하기도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마페솔리(M. Maffesoli)가 ‘here and now’ 를 외치면서 했던 말처럼,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사회적 실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타문화에 소개하고,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와 유사성을 밝히는 일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타문화와의 비교는 우리의 일상을 분별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긴요한 과제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는 일이 기존 민속학에 어떤 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존의 방법론과 차별화된 방법론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론이 민속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들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의 사회학’ 과 관련해서 한국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사회학’ 은 새로운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특수한 전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학적 시각’ 의 새로운 정의이며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이다.<sup>2</sup> 이 새로운 관점은 두 가지 수준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가령 언어라는 체계로서의 현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사용하는 문맥적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이론적 현실이라면, 후자는 일상적 실천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이다.<sup>3</sup>

후자에 속하는 우리의 일상은 이미 도처에 편재하지만 “비가시적”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상적 실천이 비가시적인 이유는 그 자체의 역설, 즉 “보이지만 주목되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 실천이 이론적 합리성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비논리적 논리(non-logical logics)” 를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상적 실천은 어떤 시점에 우연히 주어진 것에 의해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지적이고 유동적이며, “상황적인 전술” 이다. 일상적 실천은 어떤 거시적인 비전(vision) 과는 무관한 “반복적인 파편” 으로 사회생활 전체에 산재해 있으며, “항상 반복되지만 결코 완성되는 법이 없다.” 일상적 실천을 이끄는 합리성이란 일시적인 “기회논리” 에 불과하며, 그 실천의 목적 또한 “성취의 순간에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 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sup>4</sup> ‘일상생활의 사회학’ 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이며 관점인 이유는, 이렇듯 기존 사회학의 인식론에 매우 논쟁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사회학’ 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의문점은 존재한다. 궤이로(J. M. Queiroz)는,

일상이 비가시적이라 해서 그 속에 어떤 숨겨진 미스테리가 있다거나 외양 너머 어떤 깊은 것이 있음은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현실 혹은 거시적 비전과 무관한 방식으로 일상을 정의하는 데 그친다면, 이 또한 일상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언어의 체계와 언어의 사용이 다르듯이 이론적 현실과 일상은 두 개의 현실로 구분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두 개의 현실이 무관한 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심포지엄에서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한 까닭도 일상적 삶과 그 실천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sup>6</sup> 전승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온 기존의 민속 개념과 합치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를테면, 아파두라이(A. Appadurai)는 글로벌 시대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개인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주목했다. 그는 전자매체와 대량이주가 일상화된 오늘의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habitus)가 되기보다는, 의식적인 선택과 합법화, 그리고 표상의 투기장”<sup>7</sup>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즉, 항상적인 유동과 이동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문화 재생산은 이제 지극히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매우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성찰·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상정될 수 있을까? 관견에는, 이제 우리의 현재적 일상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의식조차 어려운 것과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진동(振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기존 민속학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나아가 현재적 일상을 ‘일상생활의 정치성’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 注

- 1 千鎭基, 「민속박물관과 현대생활자료」,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300 쪽.
- 2 J. M. Queiroz, 金文謙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 하나의 새로운 관점」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a new perspective”, *Current Sociology*, vol.37, no.1, spring, 1989), 朴在煥,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5, 97 쪽.
- 3 위의 글, 100 쪽.
- 4 위의 책, 99~103 쪽.
- 5 위의 책, 99 쪽.
- 6 王傑文, 「北京市高層集合住宅の暮らしと生活世界の變容」, 『「当たり前」を問う・日中韓・高層集合住宅の暮らし方とその生活世界』, 일본민속학회 2014년 국제심포지엄 발표집, 2014, 49 쪽.
- 7 A. Appadurai, 車元鉉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96), 현실문화연구, 2004, 20 쪽.